

기고 농촌공간계획, 주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이정표

농촌을 살리는 일은 부족한 시설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농촌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농촌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농촌다움'이라 부른다. 그중 농촌공간계획이 추구하는 농촌다움은 자연과 생산기반, 공동체를 지키면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이러한 농촌다움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주거, 생산, 환경

등 기능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식품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이 주민과 함께 스스로 밑그림을 그리는 상향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이 주로 수치와 밀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분산된 공간인 농촌의 계획은 철저히 '주민의 삶과 공



동체'를 중심에 둔다. 즉 주민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 모습이 계획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책과 현장을 잇는 든든한 파트너로 나선다. 현재 공사는 본사 소속 13개 부서가 모인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반(T/F)'을 운영해 주거, 일자리, 환경, 재생에너지 등 농촌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 현장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공간계획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단순히 농촌에 새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아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사람이 찾아와 살 수 있는 쾌적한 '삶터', 매력적인 '일터', 편안한 '쉼터'로 되돌리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여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의 목소리가 공간계획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